



사회정의 주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1:17

crcna.org/DayOfJustice



Christian
Reformed
Church



구약의 28개의 절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정의를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불행하게도 정의의 문제는 종종 정치와 연관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서 어느 편이 정의로운지 분별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멈추지는 맙시다. 오늘, 교단 전체가 기념하는 사회정의 주일에 우리는 모든 개혁교회 교인들이 성경적 정의를 묵상하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오늘날 어떻게 실천할 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구체적인 문제, 정치적 지도자들 혹은 우리 공동체나 나라의 불의한 사례들에 관한 기도를 할 때입니다. 타인과 함께 불의를 슬퍼하고 그 불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애통할 때 일지도 모릅니다. 어찌면 서명운동, 변호 활동, 특정한 봉사 활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 혹은 회복을 위한 훈련이나 구체적인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듣고 배워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 정의를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하여 행동을 시작합시다.

추가 자료나 사례를 보기 원하시면
crcna.org/DayOfJustice 를 방문해 주십시오.

